

4차산업혁명시대와 동학사상의 역할

- AI 전개와 관련한 ‘공통감성’ 문제를 중심으로 -

최재목*

- I. 들어가는 말
- II. 4차산업혁명과 동학
- III. 동학의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
 - ‘천지’(=지구), ‘밥’과 ‘물’에 대한 논의의 의의 -
 1. 한나 아렌트의 ‘지구적 사유, 인간의 조건’을 다시 생각함
 2. 천지부모, ‘밥’과 ‘물’과 ‘물레’(=옷)
- IV. 공통감성으로 짠 동학의 풍경
 1. ‘포(包), 접(接)’
 2. 천·지·인 ‘공경(敬)’
 3. ‘향아설위(向我設立): 내[我], 동쪽[東]을 향함
- V. 나가는 말 - 동학적 감성의 첨단 -

국문초록

이 논문은 4차산업혁명시대와 동학사상의 역할을 특히 AI 전개와 관련한 ‘공통감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것이다. 논의는 동학의 핵심인물 최재우, 최시형의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동학은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 즉 ‘밥, 물, 옷’이라는 공통감성 내에서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부적 공통감성을 활용하여 동학은,

*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choijm@ynu.ac.kr

한국전통사상과 느슨하게 호흡하면서, 상부적 개념의 열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 입체화한 것이다. ‘포(包), 접(接)’은 생명의 자연스런 연대를, 천지인 ‘공경(敬)’은 지구적 존재들의 위상을, ‘향아설위(向我設位)’는 생명의 근거와 생명의 방향을, ‘차차차차(次次次次)’는 지구의 법칙에 따른다는 지침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동학의 열개는 ‘인간 다움’, ‘나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한 것이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인간 내적인 것이었다. 그 자체로 지구적인 차원의 내러티브이다.

동학은 AI가 전개하는 시대에도,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체성이란 ‘밥, 물, 옷’이라는 공통감성이며, 그것을 중심으로 대지 위의 생명체끼리 연대를 이루고(포, 접), 기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나다움=인간다움 안쪽으로 품어서 ‘향아설위(向我設位)’로 독해하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 초융합-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도 ‘차차차차(次次次次)’-‘불연기연(不然其然)’의 지구적 법칙을 준수하며 대지 내 시공간의 룰을 찾으며 살고자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4차산업혁명 시기, 혹은 그 이후의 시기라 할지라도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라는 기조는 변치 않고, 또 그러해야 동학이 동학다울 것이다.

◆ 주제어

동학, 최제우, 최시형, 4차산업혁명시대, AI, 공통감성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4차산업혁명시대와 동학사상의 역할’을 ‘AI’(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전개와 관련한 ‘공통감성(common sense)’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논의는 주로 동학의 핵심인물인 최제우, 최시형의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감성이란, 좁게는 동학, 넓게는 한국의 사상사에 폭넓게 저류하는 이른바 감성을 말한다. 공통감성은 예컨대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나오는 ‘풍류(風流)’¹⁾, 한국인이 약하다는 ‘정(情)’, 일 몰보다 선호하는 ‘해돋이·해 뜨는 곳(동쪽)’에 대한 감성, 누구나 먹어야 하는 따스한 ‘밥 한 그릇[食一碗] 정서, IMF 때 나라를 구한다고 금불이를 모으는 ‘서로 돕고 구하는’ 정서 등,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만 아니라 현대사회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마인드(정서·심리)나 에토스를 말한다. 이것은 매우 은유적이며 무의식적인 개념체계이다. 동학도 대중적 실천을 할 경우 이런 공통감성을 시대에 맞춰서 끌어다 쓰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AI’ 전개에도 이런 공통감성을 활용하며 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통감성은 은유적이며, 무의식적 개념체계이다. 우선 공통감성은, 우리 몸에 배인 경험적인 사실을 활용하여 수많은 다른 개념과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제인 ‘은유’에 기반해 있다. 그것은 삶 전체로 이동·확산하는 이른바 인지적 유동성을 갖는다. 즉 “은유는 단지 언어뿐만이 아니라 사고와 행위 같은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한 개념이 은유적이라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은유적이라 할 수 있다.”²⁾ 다음으로, 공통감성은, ‘인지적 무의식’으로서 ‘숨겨진 손’

1)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37年 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2) G.레이크프/M.존슨 지음,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옮김, (도서출판 박이정,

에 해당한다. 이 손이 기능하여 무의식적 개념체계를 형성하고, ‘우리 경험의 모든 양상에 대한 개념화 방식을 형성’해준다. 이 손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자동적·무의식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비성찰적 상식’을 형성한다.³⁾ 이렇게 해서, 공통감성은 마치 “공중에 부는 산들바람처럼 그것은 모든 행위, 주장, 생각들을 뚫고 달린다.”⁴⁾고 표현해도 좋겠다.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가 제창한 동학의 사상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다시 개벽(開闢)⁵⁾의 혁세(革世)사상, ② ‘시천주(侍天主)’⁶⁾의 평등사상, ③ 유무상자(有無相資: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가난한 자를 적극 돕는 것⁷⁾)와 동귀일체(同歸一體)⁸⁾의 대동사상, ④ 척왜양(斥倭洋)⁹⁾의 민족주체사상.¹⁰⁾ 이들 근거에는 ‘사람 중심-존중-구제’의 사상이 있다.¹¹⁾ 이러한 실천이념은 그의 후계자들 해월 최시형(海月

2017), 21쪽(일부 인용자 수정).

- 3) G.레이코프/M.존슨 지음,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사상에 대한 도전』,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옮김, (도서출판 박이정, 2018), 40쪽. 일부 수정하여 인용함.
- 4) 유대의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헤셀의 슬기로운 말들』에서 유대이즘, 경건을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유대이즘은 평범한 행위, 삶의 하찮은 것들을 다루는 신학이다. [……] 경건은 고립된 행동, 특별한 때의 순간적인 경험 속에 있지 않다. [……] 그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변하지 않는 무엇이다. 전체 인간의 영속하는 내적인 자세이다. 공중에 부는 산들바람처럼 그것은 모든 행위, 주장, 생각들을 뚫고 달린다. 그것은 모든 성격에, 모든 행동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행로이다.” [한형조, 『성학십도, 자기구원의 가이드 맵』,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9쪽에서 재인용].
- 5) 崔濟愚, 『龍潭遺詞』, <安心歌>/<夢中老少問答歌>.
이하 崔濟愚 및 崔時亨 관련 경전의 원문은 편의상 <천도교 홈페이지>(http://www.hondogyo.or.kr/niabbs4)의 경전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6) 崔濟愚, 『東經大全』, <論學文>.
- 7) 동학조직 초기부터 순도 후 수십년간 지하조직을 이끄는 이념. 가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돕는다’라고 풀이한 경우도 있다.
- 8) 崔濟愚, 『龍潭遺詞』, <安心歌>.
- 9) 崔濟愚, 『東經大全』, <布德文>.
- 10) 임형진, 「해월 최시형의 동학재건과 영동지역의 포덕」, 『동학학보』 제48호, (동학학회, 2018.9), 11-12쪽 참조.
- 11) 임형진, 위의 논문, 12쪽 참조.

崔時亨. 1827~1898) 등으로 이어지며, ‘하늘’, ‘동쪽’, ‘개벽’, ‘부모’, ‘밥’, ‘젓’, ‘물’, ‘아이’, ‘아낙네’, ‘물레’, ‘제사상 차림’, ‘서로 도움’ 등과 같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일상의 평범한 공통감성의 개념들로 지탱된다. 즉 ‘은유적-무의식적 개념체계’를 기반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실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 ‘숨겨진 손’을 활용하여 동학은 대중들에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공통감성들은, AI 전개가 딥 러닝(deep learning)으로 더욱 인간들의 삶 깊이 섬세하게 다가설 경우, AI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일깨워준다. 공통감성이란 매우 유의미한 자산들이 현재와 미래 사회로, 마치 산들바람같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행위, 주장, 생각들을 뚫고’ 내달릴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설부른 것일까. 어쨌든 동학에 접근하는 많은 관점이 존재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AI 전개와 관련한 ‘공통감성’ 문제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와 동학사상의 역할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4차산업혁명과 동학>을 다루고, 이어서 <동학, 그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을, 마지막으로 <동학과 공통감성으로 짠 풍경>의 순서로 서술할 것이다.

II. 4차산업혁명과 동학

동학에 대해 많은 연구자가 <동학학회> 등을 중심으로 동학의 현재와 장래를 탐색해왔다. 그러나 동학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AI 전개라는 안목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는 드물다. 그런 가운데 최민자는『빅히스토리: 생명의 거대사, 빅뱅에서 현대까지』¹²⁾ 속에서, 「4차산업혁명과 ‘GNR’혁명 그리고 플랫폼혁명」을 논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AI 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동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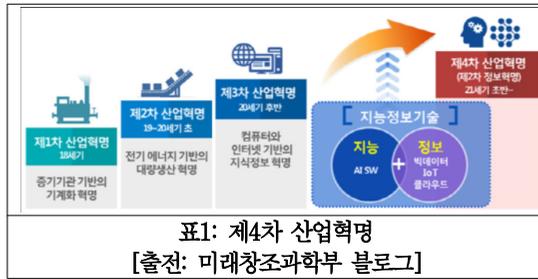
12) 최민자, 『빅히스토리: 생명의 거대사, 빅뱅에서 현대까지』, (모시는사람들, 2018).

전개는 동학의 사상이 이 시대에 건강하게 설 자리(존재위상)가 어디인가, 어디쯤에서 호출해낼 수 있을지를 연구자들에게 닦달하고 있는 듯하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다시 동학인가? 이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동학을 어떻게 이해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AI(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즉 제4차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논의 중이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인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어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가 되었다. 융합, 지능·지식·지성, 연결·속도 등에 ‘초’(超)라는 글자가 붙어, 초융합(Superfusion)-초연결(Hyper-connectivity)-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1750년부터 1830년에 걸쳐 영국에서 방적기계의 개량으로 시작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혁명’)-‘제2차 산업혁명’(19세기 후반의 전기, 석유의 사용에 따른 중화학공업으로 시작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제3차 산업혁명’(컴퓨터·인터넷으로 시작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제4차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¹³⁾

13)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46&categoryId=42346>) 참조(검색일자: 2018.5.20)



최근 등장한 ‘구글 무인 자동차’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린다. 목적지를 설정한 후 규정된 지점(Waypoint)만 지나면 자동 운전되는 항공기와 같은 원리다. 여기에 레이더·카메라·레이저 스캐너가 도로의 다양한 정보(주변 차량·사물사람·신호)를 확보한다. GPS가 조향장치 개념이라면 이 장비들은 사물탐지·충돌방지 장치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구글 컴퓨터가 종합·분석해 방향조작, 가·감속, 정지 등 운전엔 필요한 최종의사결정을 내린다.¹⁴⁾ 그래서 가상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¹⁵⁾을 추가하여 아래처럼 다시 정리할 수 있다.



표2: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16)

14)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A%B8%80_%EB%AC%B4%EC%9D%B8_%EC%9E%90%EB%8F%99%EC%B0%A8)(검색일자: 2018.12.04) 참조.
 15)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체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미 영화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어왔다. 그 예들을 몇 가지 들 어보기로 한다. 먼저, 실수로 창의성과 감정을 가지게 된 가정용 로봇인 앤 드류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려는 내용인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Bicentennial Man, 1999)에서는 불멸성을 가진 로봇이 자신의 속성인 그 불멸성 포기하고 자연인인 인간처럼 스스로 늙어가기를 자처한다. 이제 자연인(자연지능)과 인공인(인공지능)의 구별, 경계마저 애매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류멸망보고서’라는 영화는 인공지능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 살마저 가능하다. 이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은 우리 를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것이지만 이에 따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성이란 무엇인가’를 더욱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이어서, 영 화 ‘Her(그녀)’(2013)에서는 육체가 없는 사랑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영화 ‘가타카’(1997)에서 보듯이 유전자조작, 변형으로 우성인자들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고, ‘아일랜드’(2005)에서 보듯이, 누군가에게 장기를 제공할 복제인간으로 살아있는 처참한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

어쨌든 과학기술은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인 간의 연장이거나 협력·보완 장치로서 동반해야 하는 필수물이다. 우리 삶에 서는 자연인(자연지능)과 인공인(인공지능)의 대립, 절충, 합체가 환경과 여 건에 따라 폴리포니를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학과 4차산업혁 명을 연결지워서 생각할 경우,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동학사상이 이 시대에 다시 행동하는 지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묻 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4차산업혁명 논의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으나 적어 도 우리사회가 이로 인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고려 해야할 것들이 적지 않다. 우선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성찰들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실 업자가 증가하고,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어 아우성인데, 예컨대 택시 운전수

16) 하원규·최남희, 『제4차 산업혁명』, (콘텐츠하다, 2015), 153쪽.

도 가게 종업원도 모두 AI로 대체해간다면 과연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디인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만 하는가. 인구가 격감하여, 예술가도 법관도 교사도 공무원도 친구도 부부도 차츰 AI로 대체되어간다면 4차산업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폭망(暴亡)이 아닐까. 최근 방영된 <4차 산업혁명’ 폭군과 노예들>(2019년 1월 17일(목) 밤 9시 30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82회) 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4차산업혁명 진행이 보여주는 비참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4차산업혁명이 돈(자본)과 결부되어 있고, 갑과 을·병·정의 비정상적·노예적 계약 관계로 인해 과로·사망·폭력 등이 동반되는 상황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4차산업혁명을 추동해가는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비참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소수 자본가가 대다수의 빈곤한 노동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사정에 대한 종교 신문(『가톨릭평화신문』)의 사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간과 윤리’에서 말한 “기술 발전의 중심에 ‘인간’과 ‘윤리’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은 또 다시 자본가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다.”¹⁷⁾라는 충고가 피부에 와 닿는다.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지능을 키우고 적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이 가진 잠재성을 잘 파악하고 끌어내 활용해야한다고 보았다.¹⁸⁾ 즉

- 상황맥락(contextual)지능(정신):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 정서(emotional)지능(마음):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 영감(inspired)지능(영혼): 변화를 이끌고 공동의 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 신뢰성, 여러 덕목 등을 활용하는 능력
- 신체(physical)지능(몸): 개인에게 닥칠 변화와 구조적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

17) 『가톨릭평화신문』(2018.11.04./1488호)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37575&path=201810(검색일자: 2019.01.15.)

18)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새로운 현재, 2016), 251-2쪽.

슈باط은 “모든 것은 사람과 문화, 가치의 문제로 좁혀진다. …인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인간에게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과학기술은 결국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두를 위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¹⁹⁾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시를 통해 말했듯, ‘미래는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다.’…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²⁰⁾고 하겠다.

이쯤에서 동학은 다시 사유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발 딛고 있는 이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이다. 박맹수의 논의대로, 동학이 과학기술의 학(=서학)에 휩쓸리는 것을 반대하고 ‘주체적’인 ‘비서구적 근대’를 지향한 것처럼²¹⁾, 제4차산업혁명이 논의되는 이 때에, ‘천지’(=지구), ‘밥’과 ‘물’이라는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을 논의하여야 마땅하리라 본다. 다시 말해서 생사(生死)를 가진 인간의 조건, 적어도 달이나 화성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지구 내에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적극 논의해야 하리라 본다.

Ⅲ. 동학의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

- ‘천지’(=지구), ‘밥’과 ‘물’에 대한 논의의 의의 -

동학은 ‘천지’(=지구)라는 존재와 활동공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다. 보통 동학에서 사용하는 ‘천지부모’의 천지는 동양철학 일반에서 사용하는 천[=시간] · 지[=공간] · 인[=인간]의 삼재(三才)=삼극(三極)이라는 사유 범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라는 ‘시공간 환경체계’와 그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조건’을 의미한다. ‘시공

19) 클라우스 슈باط, 위의 책, 260-1쪽.

20) 클라우스 슈باط, 위의 책, 257쪽.

21) 박맹수, 「비서구근대」의 길로써 동학과 원불교의 공동체 운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6집,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8.06) 참조.

간 환경체계'는 신체라는 차원에서는 '지구' 자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천지라는 지구에 구속되어 있음을 말한다. 인간의 '천지=지구 피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밥'과 '물', 입는 옷은 그대로 천지[하늘-땅]의 것이며, 그것이 나 자신이다. 인간의 사명은 천지이자 그 자신인 '밥'과 '물', 베(=옷)를 지켜내는 것이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베(=옷)는 의식주의 근간이며, 인간의 인간다움의 바탕이다. 이런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적 존재의 근거의 상실을 의미한다.

1. 한나 아렌트의 '지구적 사유, 인간의 조건'를 다시 생각함

우리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차츰 AI로 대체해가는 시점에서, 한나 아렌트의『인간의 조건』을 호출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세계에 관해 단순히 관조하고 성찰하는 형이상학적 전통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철학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²²⁾ 우리는 밭을 땅에 딛고 의식주를 영위하는 ‘지상적 존재’²³⁾이다.

더욱이 우리는 생사(生死) 즉 ‘탄생성, 소멸성’이라는 ‘인간의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구’에 구속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부 즉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적 점으로부터 지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항상 자연을 ‘지구 밖 우주의 관점’에서 다룬다.²⁴⁾ ‘안(=내면)으로 안으로!’를 외치는 과학도 있긴 하지만 천문학, 우주과학은 자꾸 지구 밖, 심지어 태양계를 넘어서서 극한까지 도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렌트는 “지구가 결정적으로 축소”된 것은 “비행기의 발명” 때문이라고 본다. 즉 지구표면으로부터 편리하

22) 이진우, 「근본악을 경험하고 세계애로 사유하다」[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35쪽].

23) 한나 아렌트, 위의 책, 365쪽.

24) 한나 아렌트, 위의 책, 363쪽 참조.

게 떠날 수 있는 이런 “과학기술적 도구를 발명한 결과”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 이와 같은 공간적 거리의 단축은 “인간이 자신의 지구적 환경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소외”되는 희생을 치른 것임을 상징한다고, 아렌트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환경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넓어지면 질수록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을 더 잘 측량할 수는 있겠으나 “인간에게 남겨지는 세계나 지구에 구속되는 공간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²⁵⁾ 모든 것을 인간의 지성으로 정복하여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학기술적 능력으로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파괴”²⁶⁾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늘에 계신 인간의 아버지인 신의 거부로 시작했던 근대의 인간해방과 세속화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의 어머니인 지구를 거부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끝나야만 하는가?”²⁷⁾

아렌트의 말대로 ‘지구’가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동’을, 이 지상에 무엇인가 영속적인 것을 남기기 위한 ‘작업’을, 우리 삶을 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의 ‘행위’를 해야 한다²⁸⁾고 아렌트는『인간의 조건』에서 철저히 사유하고 있다. 이처럼 아렌트가 제기한 ‘지구’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관점은 동학의 사상과도 통한다.

동학은 하늘과 사물과 사람을 모두 공경하라고 한다. 최제우는 수련을 하던 중 신비체험[1860년(경신년) 4월]을 하게 된다. 한울님의 소리(天語, 仙語) 즉 천명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 한울님과의 대화[=天師問答]로 동학이 탄생한 것이다.

25) 한나 아렌트, 위의 책, 350쪽.

26) 한나 아렌트, 위의 책, 69쪽.

27) 이진우, 「근본악을 경험하고 세계애로 사유하다」[한나 아렌트, 위의 책, 35쪽].

28) 이진우, 「지을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은 지구다」[한나 아렌트, 위의 책, 452쪽 참조].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평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짐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운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깨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서도(西道)로써 사람을 가르칠까요?”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나에게 영부(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仙藥)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弓弓)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게 될 것이다.”²⁹⁾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니…”처럼, 하늘은 ‘사람’에 의지한다(天依人)³⁰⁾. 하늘은 사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서(天以人爲心)³¹⁾ 스스로를 전개해간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人是天)이다. 최시형은 인간이 지구와 일체화된 존재임을 말한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요 한울이 바로 사람이니, 사람 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사람이 없느니라.³²⁾

사람이 하는 것이 모두 하늘이 하는 일이다. 이런 대목이 최시형에 이르면, 하늘의 소리(天語)는 바로 사람의 소리(人語)가 된다.

29) 崔濟愚, 『東經大全』, <布德文>, “不意四月에 心寒身戰하여 疾不得執症하고 言不得難狀之際에 有何仙語 忽入耳中하여 驚起探問則 曰 勿懼勿恐하라 世人이 謂我上帝어늘 汝不知上帝耶아 問其所然하니 曰余亦無功. 故로 生汝世間하여 敎人此法하노니 勿疑勿疑하라 曰 然則西道以敎人乎이까 曰不然하다. 吾有靈符하니 其名은 仙藥이요 其形은 太極이요 又形은 弓弓이니 受我此符하여 濟人疾病하고 受我呪文하여 敎人爲我則 汝亦長生하여 布德天下矣리라.”

30) 崔時亨, 『海月神師法語』, <天地父母>.

31) 李敦化 編述, 『天道敎創建史』, <序>(鄭廣朝), (天道敎中央宗理院, 1933), 2쪽.

32) 崔時亨, 앞의 책, <以天食天>, “人是天天是人 人外無天天外無人.”

내 항상 말할 때에 한울님 말씀을 이야기하였으나 한울님 말씀이 어찌 따로 있으리오. 사람의 말이 곧 한울님 말씀이며 새소리도 역시 시천주의 소리이니라. 그러면 한울님 말씀과 사람의 말의 구별은 어디서 분별되는 것이냐 하면, 한울님 말씀은 대개 강화로 나오는 말을 이름인데 강화는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요, 공변된 진리와 한울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킴이니, 말이 이치에 합하고 도에 통한다 하면 어느 것이 한울님 말씀 아님이 있겠느냐.³³⁾

동학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를 그 자체로 지구적 존재로 본다. 지구 내의 초목이 죽고, 강이 죽고, 땅이 죽으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죽고 하늘이 죽는 것이다.

2. 천지부모, ‘밥’과 ‘물’과 ‘물레’(=웃)

최시형은 천지를 부모로 본다. 부모의 포태 즉 ‘자궁과 태아’가 곧 천지의 그것이다. 그래서 천지부모를 잘 섬겨야 하며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지금 사람들은 다만 부모포태의 이치만 알고 천지포태의 이치와 기운을 알지 못하느니라.³⁴⁾

한울과 땅이 덮고 실었으니 덕이 아니고 무엇이며, 해와 달이 비치었으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며, 만물이 화해 났으니 천지이기의 조화가 아니고 무엇

33) 崔時亨, 위의 책, <天語>, “내 恒常 말할 때에 天語를 이야기하였으나 天語가 어찌 따로 있으리오. 人語가 곧 天語이며 鳥聲도 亦是 侍天主의 聲이니라. 그러면 天語와 人語의 區別은 어디서 分別되는 것이냐 하면, 天語는 大概 降話로 나오는 말을 이름인데 降話는 사람의 私慾과 感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요, 公理와 天心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킴이니, 말이 理에 合하고 道에 通한다 하면 어느 것이 天語 아님이 있겠느냐.”

34) 崔時亨, 위의 책, <天地父母>, “天地即父母 父母即天地 天地父母一體也 父母之胞胎即天地之胞胎 今人但知父母胞胎之理 不知天地之胞胎之理氣也.”

인가.³⁵⁾

천지는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니라.³⁶⁾

천지부모를 길이 모셔 잊지 않는 것을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 하며 얽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여,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극진히 공경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 이니라. 그 아들과 딸된 자가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벌을 내리나니, 경계하고 삼가하라.³⁷⁾

먼저, 동학에서는 천지의 변화를 신체의 은유를 통해 인지적으로 유동시켜 간다. 동학 나름의 설명법이자 서사(내러티브)이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먹는 것이다. 사람도 하늘이고, 음식도 하늘이니, 결국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늘이 하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천지인 모두가 ‘한 기운’, ‘한 마음’이다.

우리 도의 뜻은 한울로써 한울을 먹고, 한울로써 한울을 화할 뿐이니라. 만물이 낳고 나는 것은 이 마음과 이 기운을 받은 뒤에라야 그 생성을 얻나니, 우주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졌느니라.³⁸⁾

천지는 한 기운 덩어리(一氣塊)니라. 천·지·인은 모두 한 이치·기운(一理氣) 뿐이니라. 사람은 바로 한울 덩어리요, 한울은 바로 만물의 정기이니라. 푸르고 푸르게 위에 있어 일월성신이 걸려 있는 곳을 사람이 다 한울이라 하지마는 나는 홀로 한울이라고 하지 않노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니라.³⁹⁾

35)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天地蓋載 非德而何也 日月照臨 非恩而何也 萬物化生 非天地理氣造化而何也.”

36)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天地萬物之父母也.”

37)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天地父母永侍不忘, 如臨深淵, 如履薄冰然, 至誠至孝, 極盡極敬, 人之道理也, 爲其子女者, 不敬父母, 則父母大怒, 降罰於其最愛之子女, 戒之慎之.”

38) 崔時亨, 위의 책, <靈符呪文>, “吾道義, 以天食天, 以天化天, 萬物生生, 稟此心此氣以後, 得其生成, 宇宙萬物總貫一氣一心也.”

39) 崔時亨, 위의 책, <以天食天>, “天地一氣塊也, 天地人都是一理氣而已, 人是天塊, 天

즉 우리가 먹는 곡식은 천지의 젖이며, 젖이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곡식이
라고 본다. 멋진 비유이자 은유이다.

사람은 오행의 빼어난 기운이요 곡식은 오행의 으뜸가는 기운이니, 젖이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곡식이요, 곡식이란 것은 천지의 젖이니라.⁴⁰⁾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사람이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요, 자라서 오곡을 먹는 것은 또한 천지의 젖이니라. 어려
서 먹는 것이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는 것이 천지의 곡식
이 아니고 무엇인가. 젖과 곡식은 다 이것이 천지의 녹이니라.⁴¹⁾

사람이 천지의 녹인줄을 알면 반드시 식고(食告)하는 이치를 알 것이요, 어
머님의 젖으로 자란 줄을 알면 반드시 효도로 봉양할 마음이 생길 것이니라.
식고는 반포의 이치요 은덕을 갚는 도리이니,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⁴²⁾

어찌 홀로 사람만이 입고 사람만이 먹겠는가. 해도 역시 입고 입고 달도 역
시 먹고 먹느니라.⁴³⁾

사람은 한울을 떠날 수 없고 한울은 사람을 떠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사람
의 한 호흡, 한 동정, 한 의식도 이는 서로 관계하는 기틀이니라.⁴⁴⁾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데 있는 것이다.

是萬物之精也，蒼蒼在上日月星辰所係者，人皆謂之天，吾獨不謂天也，不知者，不能覺斯言矣。”

40) 崔時亨, 위의 책, <天地父母>, “人是五行之秀氣也, 穀是五行之元氣也, 乳也者, 人身之穀也, 穀也者, 天地之乳也.”

41)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父母之胞胎, 卽天地之胞胎, 人之幼孩時, 吮其母乳, 卽天地之乳也, 長而食五穀, 亦是天地之乳也, 幼而哺者非母之乳而何也, 長而食者非天地之穀而何也, 乳與穀者是天地之祿也.”

42)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人知天地之祿, 則必知食告之理也, 知母之乳而長之, 則必生孝養之心也, 食告反哺之理也, 報恩之道也, 對食必告于天地, 不忘其恩爲本也.”

43)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何獨人衣人食乎, 日亦衣衣月亦食食.”

44)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人不離天, 天不離人, 故人之一呼吸一動靜一衣食, 是相與之機也.”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⁴⁵⁾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그 생성을 돕고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여 그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니라.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굴신과 의식은 다 한울님 조화의 힘이니, 한울님과 사람이 서로 서로 관계하는 기틀은 잠깐이라도 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⁴⁶⁾

참고로, 궁인의 ‘궁’은 동학과 직접적 연관은 없겠지만, 최제우가 한울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영부=선약=태극=궁을=궁궁의 사유 속에 ‘궁’ 자가 살아있는 것이 흥미롭다. 즉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으니 그 형상은 궁을(弓乙)이요”⁴⁷⁾ “나에게 영부(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仙藥)이요, 그 형상은 태극(太極)(☯)이요, 궁궁(弓弓)이니...”⁴⁸⁾ 태극 모양에서 둥근 것은 궁, 그 속의 곡옥 형의 웨이브(線)는을(ㄴ→乙)일 것이다. 궁을은 천지변화 원리의 알레고리, 상징이다. 함석헌이 말한 ‘얼씨구 절씨구’의 ‘얼’⁴⁹⁾과 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얼은 ‘알’처럼 둥글다. 최시형이 부지런히 들고 다녔던 ‘보따리’처럼(→그래서 그를 ‘최보따리’로 불렀다 함), 둥근(弓) 가운데 신령스런 운동(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동학에서는 ‘물’을 중시한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에로스의 기초이다.

45)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天依人, 人依食, 萬事知, 食一碗.”

46)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人依食而資其生成, 天依人而現其造化, 人之呼吸動靜屈伸衣食, 皆天主造化之力, 天人相與之機, 須與不可離也.”

47) 崔濟愚, 앞의 책, <修德文>, “胸藏不死之藥하니 弓乙其形이오 口誦長生之呪하니 三七其字라.”

48) 崔濟愚, 위의 책, <布德文>, “吾有靈符하니 其名은 仙藥이오 其形은 太極이오 又形은 弓弓이니 受我此符하여 濟人疾病하고 受我呪文하여 敎人爲我則 汝亦長生하여 布德天下矣리라.”

49) 함석헌은 「한 사람: 王陽明, 大學問」(함석헌, 『함석헌전집20: 씨울의 옛글풀이』, 한길사, 1990)의 풀이에서 ‘靈昭’를 “靈은 ‘얼씨고 절씨고’ 할 때의 얼썩, 양김스러움. 昭는 밝고 환함.”으로 하였다. [최재목, 「威錫憲과 陽明學 - 「한 사람: 王陽明, 大學問」을 중심으로 -, 『양명학』32, (한국양명학회, 2012.8), 172쪽 참조]

최시형은 이렇게 말한다.

옛글에 이르기를 “천지는 한 물덩어리이니라.” 한울과 땅이 시판되기 전은 북극 태음 한 물일 뿐이니라.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니라.

물에는 음수와 양수가 있느니라. 사람은 능히 양수는 보고 음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음수속에서 사는 것이 고기가 양수속에서 사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은 음수를 보지 못하고 고기는 양수를 보지 못하느니라.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한 후에야 현묘한 이치를 능히 알 수 있느니라.

무엇이 해가 되었으며 무엇이 달이 되었는가. 해는 양의 정이요 달은 음의 정이니라. 물기를 “태양은 불의 정이요 태음은 물의 정이니, 불도 또한 물에서 나왔습니까?” 대답하시기를 “그러하니라.” 물기를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대답하시기를 “한울과 땅도 한 물일 뿐인데, 하물며 그 사이에서 화출한 불이 어찌 홀로 북극 태음 한 물속에서 낳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한울과 땅이 시판되기 전은 북극 태음 한 덩어리 물일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이름이니라.”

물기를 “어찌하여 한울이 자(子)에 열렸다고 합니까?”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곧 북극 일육수(一六水)이니라. 그러므로 한울이 하나로 물을 낳았다고 하느니라. 이것이 한울이 하나로 물을 낳았다고 이르는 것이니, 물이 한울에서 생하였는가, 한울이 물에서 생하였는가. 물이 한울을 낳고 한울이 도리어 물을 낳아서 서로 변하고 화하여 조화가 무궁하니라. 그러나 양은 건에 속했으므로 건이 굳세고 습이 없는 이치를 체로하여,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운 도수가 있고 그믐과 보름에 찻다 비었다 하는 수는 없으며, 음은 곤에 속했으므로 그믐과 보름에 이지러졌다 가득찻다 하는 도수가 있어, 조수와 더불어 왕래하여 서로 짝하고 서로 화하는 것이니, 부인 정도도 또한 이 이치를 체로 한 것이니라.”

무릇 사람이 잉태할 처음에 한 점의 물뿐이요. 일 개월이 되면 그 물의 형상이 이슬과 같고, 이개월이 되면 그 물의 형상이 한 알의 구슬과 같고, 삼개월이 되면 화공 현묘조화의 수단으로 어머니 혈기를 받되 태문으로 받아들인데, 먼저 코와 눈을 이루고 차차 형상을 이루고, 머리가 둥근 것은 한울을 체로 하여 태양의 수를 상징하고, 몸의 넓은 태음의 수를 상징하고, 오장은 오행을 상징하고, 육부는 육기를 상징하고, 사지는 사시를 상징하고, 손은 곧 마음내키는 대로 하는 바, 조화의 수단이므로 한 손바닥 안에 특별히 팔문, 구궁, 태음, 태양, 사시, 열두달의 수를 늘어놓아 화생하느니라.⁵⁰⁾

사실 최시형의 물 중시는, 전통적으로 있어온 하도(河圖)나 초간본(楚簡本) 『태일생수편(太一生水篇)』, 『관자(管子)』에서 이미 보이는 바이다. 한국사상사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퇴계의 물(水) 개념의 중시는 최시형도 맥락을 같이 하는 공통된 특징이다. 일찍이 퇴계는 물(水)-겨울(冬)-‘지(智)-장(藏)’에 대한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이것은 ‘원(元)’-‘목(木)’-‘봄(春)’에 앞서는 ‘정(貞)’-‘수(水)’-‘겨울(冬)’의 의미 발견과 재해석이기도 하였다. 퇴계는 기우제(祈雨祭) 등 천지신명에게 굽어 보살핌을 비는 여러 제문, 예컨대 「북방의 흑룡(黑龍)에게 지내는 기우문(祈雨文)」등을 참고하면, 북방 수덕(水德)의 신 = ‘수제(水帝)’, ‘흑룡(黑龍)’, ‘등육(滕六, 눈(雪)을 맡은 신), ‘후토씨(后土氏, 水土를 맡은 신), 그리고 물이 생기고 양이 시작하는 ‘감방(坎方)’을 존중한다.⁵¹⁾ 이것은 「천명도설」(『퇴계선생속집』 제8권)의 「제4절: 만물을 낳는 근원에 대한 논의(論生物之原)」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답을 볼 수 있다.

(혹자가) 물었다. “원(元)이 만물을 시작하는 이치가 되고, 목(木)의 기운이 이어 나면 물을 낳는 근원은 마땅히 목(木)에 근본 한 것인데, 도(圖)에는 틀림 없이 수(水)에 근본 하였음은 어찌된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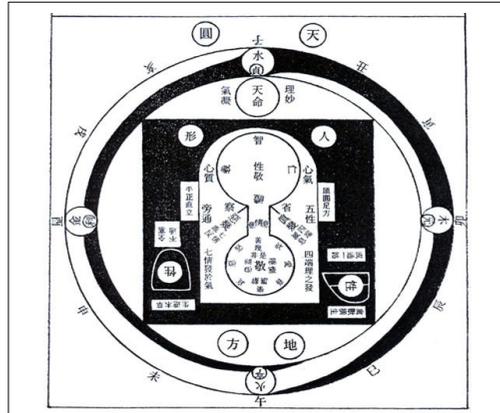
50) 崔時亨, 『海月神師法語』, <天地理氣>, “古語曰, 天地一水塊也, 天地未判前, 北極太陰一水而已矣, 水者, 萬物之祖也, 水有陰水陽水也, 人能見陽水不能見陰水也, 人之在於陰水中, 如魚之在於陽水中也, 人不見陰水, 魚不見陽水也, 確徹大悟然後, 能睹此玄妙之理也, 何以爲日, 何以爲月乎, 日陽之精也, 月陰之精也, 曰, 太陽, 火之精, 太陰, 水之精, 火亦出於水乎, 曰, 然矣, 曰, 何爲其然也, 曰, 天地一水而已, 又況其間化出之二七火, 奚獨不出於北極一水中乎, 故曰天地未判之前, 北極太陰一水而已者此之謂也, 曰, 何謂天開於子乎, 曰, 卽北極一六水也, 故天一生水者也, 此曰天一生水, 水生於天乎, 天生於水乎, 水生天, 天反生水, 互相變化, 造化無窮也, 然而陽屬之乾, 故體乾健無息之理, 有晝顯也冥之度, 無晦望盈虛之數, 陰屬之坤, 故有晦望虧滿之度, 與潮水往來相配相沖, 婦人經道, 亦體此理也, 大凡, 斯人, 凝胎厥初, 一點水而已, 至一月, 其水形如露, 至二月, 其水形如箇珠, 至三月以化工玄妙造化之手段, 收母氏血氣, 輸入胎門, 先成鼻目, 次成成形, 頭圓體天, 象太陽之數, 體魄象太陰, 五臟象五行, 六腑象六氣, 四肢象四時, 手掌卽從心所欲造化之手, 故一掌之內, 特排八門, 九宮, 太陰, 太陽, 四時, 十二月之數而化生.”

51) 李滉, 「風雨雷雨祈雨文」/「國內山川祈雨文」/「北方黑龍祈雨文」(『退溪先生文集』 권45) 등에서 발견된다.

(퇴계)선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원(元)이 진실로 만물을 시작하는 이치가 되고, 목(木)이 또한 만물을 낳게 하는 기운이 되나, 그 원(元)이 된 바의 이는 원에서 나오지 않고 정(貞)에서 나왔으며, 그 목이 된 기(氣)는 목(木)에서 나오지 않고 수(水)에서 나왔다. 그 때문에 정(貞)은 만물을 이뤄 주는 이치도 되고, 또한 만물은 시작하는 이치도 되고, 수(水)는 만물을 감추는 기운도 되고, 또한 물을 낳게 하는 기운도 된다. 이것이 수가 정(貞)의 덕을 이어 만물을 낳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리므로 만물이 날 때에 그 형상은 비록 목의 기운을 기다려 이루어지나, 그 형상이 된 근원은 실로 수(水)의 기운에서 조짐이 있게 된 것이다. 어찌하여 그러함을 아는가 하면, 대개 만물이 생기는 것은, 그 처음에는 모두가 먼저 수의 기운을 받아 점차로 엉기고 모여며, 오래된 후에 견고하게 되어 형상을 이루게 된다. 천지가 생긴 것도 또 먼저 수의 기로 이룩한 것이니, 이 이(理)에 대한 선유들의 이론은 이미 자세하므로, 이제 더 이상 부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물을 낳는 근원이 수(水)에 근본 함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하였다.⁵²⁾(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퇴계의 물에 대한 철학은, 추만(秋巒)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이 처음 만든 「천명도(天命圖)」(이것을「천명구도(天命舊圖)」라고 함)를 수정한, 이른바 「천명신도(天命新圖)」(그림1)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양촌 권근의 「천인심성합일지도」(그림2)의 사상적 기본틀을 계승하면서 ‘지’(智)=지성의 독자적 해석을 추가한다.

52) 李滉, 『退溪先生續集』 권8, <天命圖說>, “問, 既曰, 元爲始物之理, 而木之氣承之以生, 則其生物之源, 宜本於木, 而於圖, 必本於水者, 何歟. 曰, 元固爲始物之理, 木亦爲生物之氣, 而其所以爲元之理, 不出於元而出於貞, 其所以爲木之氣, 不出於木而出於水, 故貞爲成物之理, 而亦有始之之理, 水爲藏物之氣, 而亦有生之之氣, 此水之所以承貞之德, 以爲生物之源者也, 是故, 凡物之生也, 其形則雖待木之氣而成, 其所以形之之原, 實朕於水之氣矣, 何以知其然也, 蓋物之所以生者, 其初也莫不先稟乎水之氣, 漸以凝聚, 久而後堅固而成形焉, 至於天地之所以生者, 亦莫不先以水氣而成, 此理先儒之論已悉, 茲不復贅, 然則生物之原, 所以本於水者, 何足疑乎.”



[그림1: 퇴계가 정지운의 「天命圖(=天命舊圖)」를 수정한 「天命新圖」]



[그림2: 양촌 권근의 『天人心性 分釋之圖』 중 「天人心性合一之圖」]

마지막으로, 물레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시형은 아녀자도 하늘님으로 보았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내가 청주를 지나다가 서택순의 집에서 그 며느리의 베짜는 소리를 듣고 서군(徐君)에게 묻기를 “저 누가 베를 짜는 소리인가?”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베를 짭니다.”라고 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인가?”하니,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치 못하더라. 어찌 서군뿐이라.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⁵³⁾

즉, 최시형은 서택순의 며느리가 베를 짜는 것이 하늘님이 짜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며느리가 바로 하늘님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도가의 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 도인집 부인이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니 일체 아이를 때리지 말라.”⁵⁴⁾고 했다.

최시형은 잠시를 쉬지 않았다 한다. 새끼를 꼬아 짚신과 명석을 만들고, 울타리에는 과일나무와 꽃을 심었다. 마하트마 간디가 물레를 돌리듯 해월의 평생 습관은 새끼를 꼬는 일이었다. 그래서 명석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풀 새끼가 없으면 다시 풀었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다. “왜 그렇게 다시 풀니까?” 해월은 말했다. “하늘님은 쉬는 법이 없다”(至誠無息)고 했다.⁵⁵⁾ 새끼를 꼬아 명석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푸는 작업은 페넬로페의 베짜기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자연의 섭리(誠)를 인간이 닦고자 하는 것(誠之)을 은유하는 것이다.

53) 崔時亨, 『海月神師法語』, <待人接物>, “余過清州徐垞淳家, 聞其子婦織布之聲 問徐君曰, 彼誰之織布之聲耶, 徐君對曰, 生之子婦織布也, 又問曰, 君之子婦織布, 真是君之子婦織布耶, 徐君不卞吾言矣, 何獨徐君耶, 道家人來, 勿人來言, 天主降臨言.”

54)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道家婦人輕勿打兒, 打兒卽打天矣, 天厭氣傷, 道家婦人不畏天厭氣傷而輕打幼兒, 則其兒必死矣, 切勿打兒.”

55) 도병훈, 「해월 최시형 선생과 검등골」 참조(<http://www.sonahmoo.com/11970>)(김색일자: 2018.12.04)

IV. 공통감성으로 짠 동학의 풍경

위에서 보듯이, 동학은 ‘하늘’, ‘동쪽’, ‘개벽’, ‘부모’, ‘밥’, ‘젓’, ‘물’, ‘아이’, ‘아낙네’, ‘물레’ 등과 같은 개념들을 기반으로 ‘은유적-무의식적 개념체계’를 형성했다. 일상적 삶의 평범하면서 어려워 보이지 않는 하부적 공통감성을 활용하여 동학은 몇 가지의 열개를 짜내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전통사상과 느슨하게 호흡하면서 상부적 개념의 열개들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동학의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을 입체화한 것이라 하겠다.

1. ‘포(包), 접(接)’

동학의 공동체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본 조직 명칭인 ‘포(包), 접(接)’은⁵⁶⁾, 잘 알려진 대로, 고운 최치원(崔致遠)의「난랑비서(鸞郎碑序)」의 ‘포함 삼교, 접화군생(包含三教, 接化群生)’⁵⁷⁾에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포(包), 접(接)’은 신라에서 조선으로 연속하는 공통감성이다. 수운의 28대조가 최치원이다.⁵⁸⁾

‘포(包)’는 ‘포함’을 줄인 것이며,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껴안는 것이다. 일찍이 동학을 재평가한 범부 김정설은 ‘포함’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포함은 삼교를 믹스·퓨전한 것이 아닌, 신라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 삼교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신라문화 고유의 그릇으로서의 - ‘선형적 형식’으로 이해했다.⁵⁹⁾ 포는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인

56) 포·접에 대한 논의는 김지하, 『김지하 전집·2』, (실천문학, 2002), 175-185쪽 참조.

57)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37年條>.

58) 李敦化編述, 앞의 책, <第一編 大神師>, 1쪽 참조.

59) 즉, 그는 이렇게 말한다. 「風流道の 性格을 究明하려면 첫째 그도를 어찌해서 風流라고 일렀을가 우선 風流란 語義부터 意味를 가진것이고 또 實乃 「包含」三敎라 했으니 이 「包含」二字도 容易하게 看過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包含二字를 잘못解釋하면 우리文化史의 全體가 사뭇 비틀어지게 되는 판이란 말이다. 이를테면 三敎를 調和했

‘勺(포) 자에서 왔다. 아이를 감싸 품은 어미의 가슴이나 배처럼, 감싸 안는 쪽이 거기에 안기는 것보다 더 커야한다. ‘포(包)’는, 해월 최시형의 “인오동포(人吾同胞), 물오동포(物吾同胞)”⁶⁰의 ‘동포’나 “부모지포태(父母之胞胎), 즉천지지포태(卽天地之胞胎)”⁶¹의 ‘포태’처럼, 모성적-여성적-신체적 은유이다. 동포는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자매’이고, 포태는 ‘자궁과 태아’이다. 모두 ‘여성’-‘몸’을 근간으로 유동해간다.

아울러 ‘접’은, ‘외유접령지기(外有接靈之氣)하고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話之敎)하되...’⁶²에서처럼, 기운-신령과 같은 외부적 타자와 생명적 교감·접촉, 그로 인한 ‘살려짐(생명을 기쁨)’,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생명적 지평의 확대, 확산을 은유한다.

2. 천·지·인 ‘공경(敬)’

동학에서는 인간과 만물이 곧 하늘이었다. 모든 것은 공경의 대상이었다. 최재우를 잇는 최시형의 삼경(三敬) 사상, 즉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은 지구적 사유 그리고 인간의 조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람은 첫째로 한울을 공경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라. 한울을 공경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다거나 或은 集成했다거나 或은 折中했다거나 或은 統一했다거나 或은 統合했다 거나할 境遇에는 본대 固有의 淵脉은 없이 三敎를 集畵한것이 될것이다 그런데 이건 「包含」이라 했으니 말하자면 이 固有의 精神이 본대 三敎의 性格을 包含했다는 意味로 解釋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三敎라 한것은 물론 儒佛仙인데 이 風流道의 精神이 이미 儒佛仙의 性格을 包含한것이 거니와 여기 하나 重大問題가 들어있는것은 風流道가 이미 儒佛仙 以前の 固有精神일진대는 儒佛仙의 性格의 各面을 內包한 동시에 그보다도 儒佛仙이 所有하지 않은 오직 風流道만이 所有한 特色이 있는것이다.[金凡父, 「風流精神과 新羅文化 - 風流道論緒言 -」: 최재우·정다운 엮음, 『凡父 金鼎萬 단편선』, (도서출판 선인, 2009), 41쪽.]

60) 崔時亨, 『海月神師法說』, <三敬>.

61) 崔時亨, 위의 책, <天地父母>.

62) 崔濟愚, 『東經大全』, <論學文>.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 하면 한울은 진리의 중심을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한울을 공경함은 결단코 빈 공중을 향하여 상계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한울을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하는 길이니,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이 곧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 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한울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한울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니라.

둘째는 사람을 공경함이니 한울을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한울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 닦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나. 도인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이르라 하셨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풍속에 귀신을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은 천대하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 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갈을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물건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⁶³⁾

63) 崔時亨, 『海月神師法說』, <三敬>, “사람은 첫째로 敬天을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先師의 創明하신 道法이라. 敬天의 原理를 모르는 사람은 眞理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하면 한울은 眞理의 衷를 잡은 것이므로써이다. 그러나 敬天은 결단코 虛空을 向하여 上帝를 恭敬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恭敬함이 곧 敬天의 道를 바르게 하는 길이니, 「吾心不敬이 卽 天地不敬이라」 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敬天함으로써 自己의 永生을 알게 될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人吾同胞 物吾同胞의 全의 理諦를 깨달을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남을 爲하여 犧牲하는 마음, 世上을 爲하여 義務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敬天은 모든 眞理의 中樞를 把持함이나니라.

둘째는 敬人이니 敬天은 敬人의 行爲에 의지하여 事實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敬天만 있고 敬人이 없으면 이는 農事의 理致는 알되 實地로 種子를 땅에 뿌리지 않는 行爲와 같으니, 道 닦는 자 사람을 섬기되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사실 경(敬)의 에토스는, 일직이 단군신화의 하늘 섬김 사상, 원효의 귀명(歸命) 사상,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천명(天命)='하늘'·'하늘뜻' 사상⁶⁴)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것은 동학(東學)으로 연속된다. 동학의 '공경-섬김' 사상은 가까운 수운의 부친의 학문 즉 퇴계학과도 연관된다.

수운의 “6세조 이후로는 대대로 유가(儒家)에 이름이 있어 도학(道學)으로 가전(家傳)”하였고⁶⁵), 수운의 부친 근암 최옥(近菴 崔濬, 자는 子成, 1762-1840)은 13세 때부터 기와 이상원(畸窩 李象遠)의 문하에서 배웠다. 근암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퇴계 선생이 우리나라 유학을 깊이 분석하고 널리 종합하여 매우 뜻 깊은 학설을 이루었다. 그래서 위로는 주자의 참된 전통을 이어받았고 밑으로는 학봉김성일(鶴峯 金誠一), 경당장흥효(敬堂 張興孝), 존재 이회일(存齋 李徽逸), 갈암이현일(葛庵 李玄逸), 밀암 이재(密庵 李栽) 같은 여러 어진 학자들의 원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선생이 우리나라 성리학을 일으켜 떨치게 하였다. 나를 가르친 기와 선생은 바로 갈암의 현손(玄孫, 5세손)이며, 밀암의 외손인 대산의 문하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선생의 도와 문장은 그 뿌리가 있어서 순수하다.”⁶⁶) 이상원은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의 玄孫(5세손)이며, 갈암은 장흥

도를 實行하는 者니라. 道家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降臨하였다 이르라 하였으니, 사람을恭敬치 하니하고 鬼神을恭敬하여 무슨 實效가 있겠느냐. 愚俗에 鬼神을恭敬할 줄은 알되 사람은 賤待하니, 이것은 죽은 父母의 魂은恭敬하되 산 父母는 賤待함과 같으니라. 한울이 사람을 떠나 別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恭敬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解渴을 求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敬物이니 사람은 사람을恭敬함으로써 道德의 極致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物을恭敬함에까지 이르러야 天地氣化의 德에 合一될 수 있나니라.”

64) 『龍飛御天歌』에서는 천을 ‘하늘’, 천명을 ‘하늘뜻’으로 번역하고 있다(정대위, 『용비어천가에 보이는 천명사상의 종교사적 의의』,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 (신학연구소, 1986), 135쪽 참조).

65) 李敦化編述, 『天道敎創建史』, <第一編 大神師>, 1쪽 참조.

66) 崔濬, 『近庵集』권5, <畸窩先生文集序>, “惟退陶夫子, 集東儒之大成, 紹朱子之嫡統, 下以啓鶴敬存葛密諸賢之淵流大山先生得密翁正傳, 扶植吾道興起斯文, 先生以葛密玄孫, 受學於大山門下, 則先生之道之文, 其眞有所本矣.” [崔濬, 『近庵集』, 최동희 옮김, (창커뮤니케이션, 2005), 587쪽 참조]

효의 딸인 여성 유학자 장계향(張桂香)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퇴계사상의 핵심인 ‘경(敬)’ 사상은, 장계향-존재·갈암을 거쳐 대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기와-근암→수운으로 저류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운의 부친 근암의 유학은 수운의 득도와 계시라는 독창적 사상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⁶⁷⁾

3. ‘향아설위(向我設位)’: 나[我], 동쪽[東]을 향함

동학에서는 아(我)-오(吾)-오심(吾心)이라는 말을 잘 쓴다. 모든 것은 ‘나’에서 출발한다. 나라는 인간이 중심이다. 하늘이 위대하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인간에 의지한다. ‘하늘은 사람을 마음으로 삼는다[天以人爲心]’⁶⁸⁾.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한다[天依人]’⁶⁹⁾. 모두 인간에서 출발함을 말한다. 최시형은 이것을 ‘향아설위(向我設位)’로 말한다.

신사가 물으시기를 “제사 지낼 때에 벽을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나,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나?” 손병희가 대답하기를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신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제물을 차릴 때에 혹 급하게 집어 먹었다면, 다시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겠느냐 그대로 지내도 옳겠느냐?” 손천민이 대답하기를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겠습니다.”⁷⁰⁾

이것이 해월의 마지막 설법이다. 그때의 제사는 벽을 향하여 밥을 놓고 지

67) 최재목, 「凡父 金鼎高의 <崔濟愚論>에 보이는 東學 이해의 특징」, 『동학학보』21호, (동학학회, 2011.4) 참조.

68) 李敦化 編述, 앞의 책, <序>(鄭廣朝), (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2쪽.

69) 崔時亨, 앞의 책, <天地父母>.

70) 崔時亨, 위의 책, <向我設位>, “神師問曰, 奉祀之時, 向壁設位可乎, 向我設位可乎, 孫秉熙答曰, 向我設位可也, 神師曰, 然矣, 自此以後, 向我設位可也, 然則奉祀之物, 準備時, 或有急遽拿食, 則再備奉祀可乎, 其然奉祀可乎, 孫天民答曰, 其然奉祀可也.”

나는 ‘향벽설위’였다. 그런데 해월은 “나(자기)를 향해서 제사상을 차려라, ‘내(자기)’가 곧 귀신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다. “귀신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해월은 “네가 밥을 먹고 싶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한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울님께서 감응하지 않는 정은 혹 본일이 있느냐. 사람은 다 모신 한울님의 영기로 사는 것이니, 사람의 먹고 싶어하는 생각이 곧 한울님이 감응하시는 마음이요, 먹고 싶은 기운이 곧 한울님이 감응하시는 기운이요, 사람이 맛나게 먹는 것이 이것이 한울님이 감응하시는 정이요, 사람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한울님이 감응하지 않는 이치니라. 사람이 모신 한울님의 영기가 있으면 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 입에 한 손갈 밥을 드리고 기다려도 능히 한알 밥이라도 먹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한울님이 이미 사람의 몸 안에서 떠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능히 먹을 생각과 먹을 기운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한울님이 능히 감응하지 않는 이치니라.」⁷¹⁾

이것은 하늘-신이 아니라 나=인간 중심의 독법(讀法)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예고로 하여금 사물에 그 의미를 규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변환되는 이른바 ‘향아설위’의 적극적인 예들은 예컨대 우리나라의 회화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가 그린「절로도해」(折蘆渡海. 간송미술관 소장)(그림3)를 보면 서역의 달마라는 인물을 조선의 스님으로 바꾼다. 이어서, 경주 남산의 일명「할매 부처상」(그림4)은 부처가 경주인(慶州人)의 ‘할매’로 바뀐다.⁷²⁾

71) 崔時亨, 위의 책, 같은 곳, “神師曰, 然則天主不感應之情, 或有見乎, 人皆以侍天主之靈氣生活者也, 人之欲食之念, 卽天主感應之心也, 欲食之氣卽天主感應之氣也, 人之甘食, 是天主感應之情也, 人之無欲食之念, 是天主不感應之理也, 人有侍天主之靈氣, 則生者也, 不然則死者也, 屍體之口而奠一匙飯以待之, 不能食一粒之飯, 此天主既離於人之體內也, 故不能發食念食氣也, 此天主不能感應之理也.”

72) 최재목, 「장계향의 성인관(聖人觀)과 교육론」, 『유학연구』45, (충남대유학연구소, 2018.11), 82쪽 참조.

	
<p>[그림3]: 김홍도의 「절로도해」(折蘆渡海) (지본담채, 105.5*58.3cm, 간송미술관 소장)</p>	<p>[그림4] 경주 남산, 일명 「할매 부처상」</p>

이어서 ‘향아설위’는 ‘동쪽’ 지향을 의미한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이다. 해 뜨는 방향=동쪽(orient)을 향한 지향, 방향설정이다.

최재우의 동학에는 ‘동(東)-인(仁)-목(木)’의 사유가 명확하다. 예컨대, 그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앞 선 성인이 가르친 바”⁷³⁾라 하였고, “뉘어서 필법을 이루니 그 이치가 한 마음에 있다. 우리나라는 목국(木局)을 상징하니, 삼절(三絶)의 수를 잃지 말라. 여기서 나서 여기서 얻은 까닭으로 동방부터 먼저 한다”⁷⁴⁾고 하였다.

일찍이 장지연(張志淵)은『조선유교연원(朝鮮儒教淵源)』에서, “이아(爾雅)에 ‘태평(太平)의 사람은 어질고 착하였다’고 했는데, 태평이란 동해의 이름이다. 곧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우리 동쪽 사람은 그 성질이 어질고 착하였다. 그러므로 남만(南蠻)·북적(北狄)·서융(西戎)에는 모두 벌레 충(虫) 지나 개

73) 崔濟愚, 『東經大全』, <修德文>, “仁義禮智는 先聖之所教요.”

74) 崔濟愚, 위의 책, <筆法>, “修而成於筆法하니 其理在於一心이라 象吾國之木局하니 數不失於三絶이라 生於斯得於斯 故로 以爲先東方이라.”

견(犬)자를 붙였으나 오직 우리나라만은 이(夷)라고 불렀다. ‘이’라는 것은 ‘궁인=활 쓰는 사람’을 말한다.”⁷⁵⁾고 기술했다. 여기서 지적인 ‘동쪽-어둡’이라는 개념은 고대에서 근대로 연속하는 조선의 ‘공통감성’을 언어화한 것이라 해도 좋겠다.

목국이란, 명리학의 12지지에서 해묘미(亥卯未)의 지지가 지지삼합(地支三合)⁷⁶⁾의 법칙에 따라 아래의 ‘국방대조도(局方對照圖)’⁷⁷⁾처럼 합체하여 단결하고 왕목(旺木)이 되어 목국(木局)을 이루는 것이다. 목국은 방위로서는 동방이다.

국(局)	목국(木局)	화국(火局)	금국(金局)	수국(水局)
	해묘미(亥卯未)	인오술(寅午戌)	사유축(巳酉丑)	신자진(申子辰)
방(方)	인묘진(寅卯辰)	사오미(巳午未)	신유술(申酉戌)	해자축(亥子丑)
	동방(東方)	남방(南方)	서방(西方)	북방(北方)

삼절이란 시서화삼절(詩書畫三絶)인데, 문인(文人) 예술에서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 서, 화의 세 가지(三)가 모두 뛰어난(絶) 것을 말한다. 동방은 어둡(仁)과 나무를, 아울러 평화를 사랑하고 부드러움을 지향하는 선비를 상징한다. 무(武)가 아니라 문(文)이다. 문인의 순리라는 우주만물의(→지구적) 섭리를 중시한다.

수운 최제우가 제창한 ‘동학(東學)’은 서방(西方)의 학 즉 서학(西學)⁷⁸⁾에 대항하는 우리 동방(東方)⁷⁹⁾ 즉 ‘조선의 학’을 말한다. 최제우가, “나는 동쪽

75)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권1, “爾雅曰, 太平之人, 仁, 太平者, 東海名, 卽指吾東方也, 吾東方之人, 其性仁善, 故南蠻北狄西戎, 皆從虫從犬, 惟東方稱夷, 夷者, 弓人也.”

76) 12지지의 장생, 제왕, 묘(長生 帝旺 墓)에 해당하는 오행 3자가 동시에 합체하여 강력하게 되고 목(木), 화(火), 금(金), 수(水)의 4오행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함.

77) 노영준, 『역학사전』(백산출판사, 2006)[<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3012&cid=41893&categoryId=41902>](검색일자: 2018.12.1) 참조.

78) 崔濟愚, 앞의 책, <論學文>, “曰同道言之則 名其西學也니까 曰不然하다.”

79) ‘東方’이란 말은 『東經大全』의 <修德文>과 <筆法>에 나온다.

(=조선)에서 태어나서 동쪽에서 (도를) 받았다. (내가 받은 도를 곳을 말하면 상제이기에) 비록 천도(天道)라고 하겠으나, 학이라는 점에서는 동학이라 할 것이다.”⁸⁰)라고 한 말처럼, ‘조선의 현실에 기초한 주체적 학문’⁸¹)을 의미한다. ‘동’은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원에, 성장수장(生長收藏)의 ‘생’에, 목화금수(木火金水)의 ‘목’에, 인예의지(仁禮義智)의 ‘인’에 상응한다. 결국 ‘향아설위(向我設位)’는 나[我], 동쪽[東]을 향한 것인데, 지구 내에서 ‘나’라는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에 다름 아니다.

4. 차차차차(次次次次): 지구의 법칙에 따름(順天)

이러한 사고는 최재우가 말하는 ‘차차차차(次次次次)’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차차차차는, 1년 365일 시간이 지나듯, 봄여름가을겨울이 어김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자연의 순리를 말한다.

봄바람이 불어 간밤에 일만 나무 일시에 알아차리네.
하루에 한 송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피네.
삼백 예순 날이 되면 삼백 예순 송이가 피네.
한 몸이 다 바로 꽃이면 온 집이 바로 봄일세.⁸²)

우주 속의 인간의 지위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지구 내 인간존재의 삶 즉 ‘지구적 사유,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 한다. 인간은 일상적인 익숙한 현실에 따라 살 뿐, 그것이 왜 그런지 일일이 따져 묻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지구적 법칙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장자』에서 “이미 그러한데도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을 ‘도’라고 한다.”⁸³) 모두 “그래서 그

80) 崔濟愚, 위의 책, 같은 곳, “吾亦生於東 受於東하니 道雖天道나 學則東學이라.”

81) 박맹수, 『「비서구근대」의 길로써 동학과 원불교의 공동체 운동』,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제76집,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8.06), 22쪽.

82) 崔濟愚, 『東經大全』, <詩文>, “春風吹去夜, 萬木一時知, / 一日一花開, 二日二花開, / 三百六十日, 三百六十開, / 一身皆是花, 一家都是春.”

런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것이다.”⁸⁴⁾ 최제우는 ‘불연기연(不然其然)’에서, “그렇지 않음은 알지 못하므로 그렇지 않음을 말 못하고, 그 그러함은 알 수 있으므로 그 그러함을 믿는 것이다. …기필키 어려운 것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그 그러함이라. 먼데를 캐어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주에 부쳐보면 그렇고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지”⁸⁵⁾라고 말한다. ‘그렇고 그런’ 법칙은 ‘차차차차(次次次次)’로서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의 최종적 근거이다. 이른바 ‘천명(天命)’에 해당한다.

IV. 나가는 말

- 동학적 감성의 첨단 -

지금까지 최제우, 최시형의 사유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와 동학사상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AI 전개와 관련한 ‘공통감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국 동학은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 즉 ‘밥, 물, 옷’이라는 공통감성 내에서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하부적 공통감성을 활용하여 동학은, 한국전통사상과 느슨하게 호흡하면서, 상부적 개념의 열개들을 만들어내는 데 그것은 ‘지구적 사유=인간의 조건’ 입체화한 것이었다. ‘포(包), 접(接)’은 생명의 자연스런 연대를, 천지인 ‘공경(敬)’은 지구적 존재들의 위상을, ‘향아설위(向我設位)’는 생명의 근거와 생명의 방향을, ‘차차차차(次次次次)’는 지구의 법칙에 따른다는 지침을 말한 것이었다.

이러한 몇 가지 동학의 열개는 ‘인간다움’, ‘나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한 것

83) 『莊子』, <齊物論>, “己而不知其然, 謂之道.”

84) 위의 책, 같은 곳, “然於然, …不然於不然.”

85) 崔濟愚, 위의 책, <不然其然>, “不知不然故로 不曰不然이오 乃知其然故로 乃恃其然者也라…是故로 難必者는 不然이오 易斷者는 其然이라 比之於究其遠則 不然不然 又不然之事 付之於造物者則 其然其然 又其然之理哉인저.”

이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인간 내적인 것이었다. 그 자체로 지구적인 차원의 내러티브이다.

동학은 AI가 전개하는 시대에도,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체성이란 ‘밥, 물, 옷’이라는 공통감성이며, 그것을 중심으로 대지 위의 생명체끼리 연대를 이루고(포, 접), 기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나다움=인간다움 안쪽으로 품어서 ‘향아설위(向我設位)’로 독해하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 초융합-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도 ‘차차차차(次次次次)’-‘불연기연(不然其然)’의 지구적 법칙을 준수하며 대지 내 시공간의 룰을 찾으며 살고자 할 것이다. 동학과 공통감성으로 짠 풍경은 ‘봄바람이 불어 간밤에 일만 나무 일시에 알아차리’는 ‘하루에 한 송이...삼백 예순 날...삼백 예순 송이가 피’는 ‘한 몸이 다 바로 꽃’이고, ‘온 집이 바로 봄’인 시대가 아닐까. AI가 딥러닝 해가야 할 것은 오히려 이런 리듬과 생명력 이리라. ‘밥, 물, 옷’이라는 공통감성이리라. 4차산업혁명 시기, 아니 그 이후의 시기라 할지라도,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라는 기조는 변치 않고 지속해야 할 것이다. 동학이 ‘천지=부모’라는 지구적 사유를 저버리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더 이상 동학은 동학이 아니게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1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莊子』

金富軾, 『三國史記』

崔濟愚, 『龍潭遺詞』/『東經大全』

崔時亨, 『海月神師法語』

李滉, 『退溪先生文集』/『退溪先生續集』

崔鑿, 『近庵集』

李敦化 編述, 『天道教創建史』, (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金凡父, 「風流精神과 新羅文化 - 風流道論緒言 -」, 최재목·정다운 엮음, 『凡父 金鼎高 단편선』, 도서출판 선인, 2009.

김지하, 『김지하 전집·2』, 실천문학, 2002.

G.레이코프/M.존슨 지음,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옮김, 도서출판 박이정, 2017.

G.레이코프/M.존슨 지음,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사상에 대한 도전』,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옮김, 도서출판 박이정, 2018

최민자, 『빅히스토리: 생명의 거대사, 빅뱅에서 현대까지』, 모시는사람들, 2018.

崔鑿, 『近庵集』, 최동희 옮김, 창커뮤니케이션, 2005.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새로운 현재, 2016.

하원규·최남희, 『제4차 산업혁명』, 콘텐츠하다, 201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한형조, 『성학십도, 자기구원의 가이드 맵』,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함석헌, 『함석헌전집20: 씨울의 옛글풀이』, 한길사, 1990.

박맹수, 「'비서구근대'의 길로써 동학과 원불교의 공동체 운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제76집,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8.6.

임형진, 「해월 최시형의 동학재건과 영동지역의 포덕」, 『동학학보』제48호, 동학학회, 2018.9. 11-12쪽.

정대위, 「용비어천가에 보이는 천명사상의 종교사적 의의」,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 신학연구소, 1986. 135쪽.

최재목, 「咸錫憲과 陽明學 - 「한 사람: 王陽明, 大學問」을 중심으로 -」, 『양명학』32, 한국양명학회 2012.8. 172쪽.

『가톨릭평화신문』(2018.11.04./1488호)

http://www.cpbk.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37575&path=201810(검색일자: 2019.01.15.).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46&categoryId=42346>)(검색일자: 2018.5.20.).

노영준, 『역학사전』(백산출판사, 200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3012&cid=41893&categoryId=41902>)(검색일자: 2018.12.1.).

도병훈, 「해월 최시형 선생과 검등골」(<http://www.sonahmoo.com/11970>)(검색일자: 2018.12.04.) 참조.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A%B8%80_%EB%AC%B4%EC%9D%B8_%EC%9E%90%EB%8F%99%EC%B0%A8)(검색일자: 2018.12.04.).

천도교 홈페이지

(<http://www.chondogyo.or.kr/niabbs4>)(검색일자: 2018.12.04.).

The Role of Donghak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Common Sense related to AI Development

Choi, Jae-mok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Donghak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common sense related to AI development.

In this discussion, mainly I will review the data of Choi Je-woo and Choi Si-hyeong, who are key figures in Donghak.

Donghak is discussed within Global thinking and condition of humanity, that is the common sense as like rice, water, and clothes. Donghak, utilizing these subordinate common sensibilities, creates an upper concept by breathing gently with Korean traditional thought.

Po(包) and Jeop) are is a natural organization of life that is a private one. Respect for heaven, earth, and man shows the status of the global beings. To set up a priesthood for me is the subjective position and direction of life. The gradual progression is a guideline that follows global rules. This conceptual structure of dynamics is a representation of human discovery. It is not the external, but the narrative of the internal, the global.

Donghak will never destroy or give up his identity in the age of AI

development. The identity of Donghak is common sense such as rice, water, clothes. It forms a community among living things on the earth centered on these things. So, rather than moving away from the machine, it draws the machine inside of humanity.

Furthermo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super fusion, super conductivity, and super intelligence also we want to respect the rules of global and global time and space. In other words, Donghak will depend on people and food during or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is the identity of Donghak as it.

keywords:

Donghak, Choi Je-Woo, Choi, Shi-Hyu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 common sense

